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탤런트 신애라 건강 캠페인송 불러

탤런트 신애라가 어린이 건강을 위한 캠페인송을 부른다.

신애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WE2(well eating! well excising)' 공식 캠페인에 가수로 참여한다.

'WE2'는 편식하지 않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활동적인 놀이와 생활습관으로 체력을 키워 튼튼한 어린이가 되자는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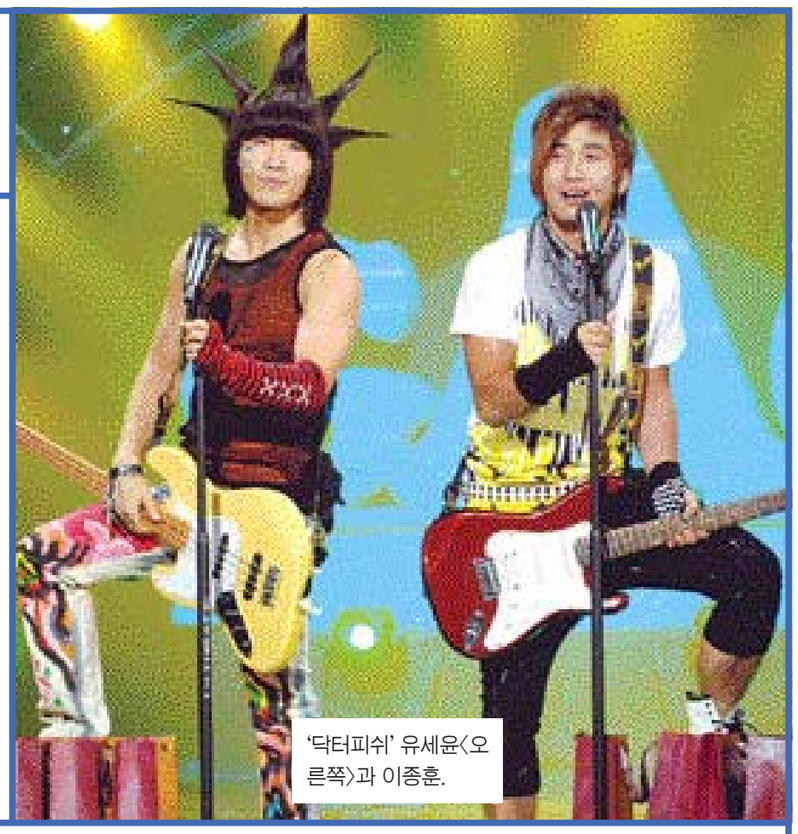
신애라는 어린이 합창단 '예쁜 아이들'과 함께 캠페인 공식 노래인 '위투송'을 녹음하며 완성된 곡은 이달 중순 TV 광고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신애라는 남편 차인표와 함께 두 아이를 입양했으며 아동구호단체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세계 약 3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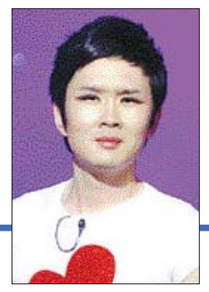
가요계로 진출하는 개그맨들이 늘고 있다.

과거 개그맨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특정 이벤트를 겨냥해 앨범 발매를 했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가요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그맨 못말리는 끼 가요계서 놀아 볼까



'닥터피쉬' 유세윤〈오른쪽〉과 이종훈.



〈'왕비호' 윤형빈〉

앨범 발표 잇따르며 가수 데뷔
가요 순위 상위권 차지 눈길도

KBS 코미디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의 인기 코너였던 '닥터피쉬'에서 동명 타이틀의 록 밴드로 분해 사랑을 받았던 유세윤은 지난 2일 또 다른 멤버인 이종훈과 함께 '닥터피쉬'라는 팀명 그대로 디지털 앨범을 발표, 가수로 정식 데뷔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당겨'를 비롯해 '개콘'에서 '닥터피쉬'가 선보였던 곡들 중 반응이 좋았던 10곡을 편곡해 보너스 트랙으로 담았다. 특히 '개콘'에서 활동 중인 이태선 밴드의 이태선 교수와 '눈사람' '게임의 여왕' 등의 OST에 참여한 이제헌이 공동으로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개콘'의 '버퍼링스'코너를 통해 인기를 얻었던 엄경천, 안윤상도 앨범 발매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들은 '개그맨' '씬'(Scene) 모두 7곡이 수록될 이번 디지털 앨범에 직·간접으로 참여해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가요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를 선보이기 위해 6개월 동안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버퍼링스'의 앨범은 후반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달 안에 UCC를 통해 앨범 발매를 알리는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콘'의 간판코너인 '봉숭아 학당'에서 스타들을 향해 토해내는 거침없는 독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왕비호' 윤형빈은 지난 7월 '오버액션'이라는 록밴드를 결성, 가수로 활동중이다.

이 밴드에는 윤형빈 말고도 '개콘-조선왕조 부록'의 김준현(기타)과 '폭소클럽(KBS)-화니지니'의 김영민(베이스)도 함께하고 있다.

'왕비호 프로젝트'란 디지털 싱글 앨범에는 'Run Run Run'과 '개같이 벌자' 등의 록음악들이 수록됐으며 모두 김영민이 작사·작곡, 윤형빈이 프로듀싱했다.

현재 이들은 일주일에 2~3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으며 홍대 부근 클럽 '사운드 홀릭'에서 정기 공연 중이다. 올해 안에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개그맨 김재우, 김경욱, 김태환으로 구성된 '나몰라 패밀리'는 지난 8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앨범 '사랑이 그렇게 쉬워'가 각종 온라인 가요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음원 공개 한 달 만인 지난 9월에는 싸이월드 실시간 차트와 소리바다 오늘의 차트에서 빅뱅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나몰라'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딘 지금까지 모두 6장의 앨범을 내며 가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쌍둥이 개그우먼 강주희·승희 자매는 올 초 '윙크'를 결성, 각종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트로트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중이다.

그동안 '개콘' '폭소클럽'(KBS) 등에서 성대모사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들은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 약 1년간의 보컬트레이닝과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가수로 성공하기 전까지 개그는 안 하겠다"며 가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가장 애절한 발라드 부른 가수는? 신·승·훈

"객관식 아닌 주관식 가수 되고 싶었다"

유재하의 1집에 반해 작곡을 시작했고 그의 기일인 1990년 11월1일 데뷔한 싱어송라이터 신승훈은 18년간 가요계에서 '기록의 사나이'로 불렸다.

음반 7장 연속 밀리언셀러, 10집까지 총 판매량 1천500만장, 수상 트로피 700여개, 공연 횟수 700여 회, 10년간 1위를 가장 많이 한 가수 · 작곡자, 술한 제의에도 CF 출연 0번.

그의 장수비결은 애틋하고 애절한 멜로디에 김소월의 정서인 '애이불비(哀而不悲)'를 바탕으로 사랑·이별·슬픔을 노랫말에 담았고, 비음이 섞인 미성을 가미해 팬들의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가 11집 음악의 맛보기로 세장의 미니음반을 잇따라 발표하는 프로젝트 '언익스펙티드 트위스트(Unexpected Twist)'의 첫번째 미니음반 '라디오 웨이브(Radio Wave)'를 발표했다.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가수가 되고 싶었다. 가장 애절한 발라드를 부른 가수?'라는 주관식 질문에 신승훈이라는 답이 나오도록 18년간 발라드만 노래했다. 오래 전부터 어느 시점에 음악적인 변화를 주려 준비했다. 굵직한 터닝 포인트가 결혼이 아닌, 10집이라고 생각했다."

자작곡 6곡이 수록된 첫 미니음반은 신승훈의 주종목과 장점을 배제하고 만들어 확실히 변화가 감지된다.

타이틀곡 '라디오를 켜봐요'는 도입부의 발라드적인 멜로디에서 후렴구 록적인 사운드가 어우러져 음악적인 반전을 강하게 표현했다.

"어차피 저를 있게 해준 음악세계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른 스타일의 발라드로 돌아가야죠. 지금은 기존 음악 장르의 파괴가 아니라 제 안의 음악적인 틀, 사고를 깨는 과정일 뿐입니다." /연합뉴스

10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모던보이	26만9천128	33만3천775
2	맘마미아!	20만5천259	349만9천809
3	고고70	17만7천148	24만3천360
4	신기전	11만9천646	352만6천931
5	바빌론 A.D.	10만6천920	12만6천649
6	트럭	9만3천77	42만8천955
7	헬보이 2 : 골든 아미	7만4천795	33만6천809
8	영화는 영화다	5만1천901	123만4천810
9	멋진 하루	4만3천886	31만5천97
10	더 클럽	3만527	3만7천761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	시청률
1	조강지처 클럽	SBS	36.9
2	너는 내운명	KBS1	29.4
3	에덴의 동쪽	MBC	26.6
4	내사랑 금지옥엽	KBS2	22.0
5	일요일이 좋다 1부	SBS	21.3
6	일요일 일요일 밤에 2부	MBC	19.2
7	베토벤 바이러스	MBC	18.6
8	황금어장	MBC	18.2
9	해피 투게더	KBS2	17.8
10	KBS뉴스 9	KBS1	17.4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아이언 맨	SF
2	고사:피의 중간고사	공포
3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액션
4	라스베가스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	로맨스
5	적벽대전 :거대한 전쟁의 시작	액션
6	추격자	스릴러
7	장강7호	코미디
8	색즉시공 시즌 2	코미디
9	10,000 BC	모험
10	나는 전설이다	SF

〈자료제공:으뜸과 버금〉

가요

순위	제 목	가 수
1	노바디	원더걸스
2	어쩌나	브라운아이드걸스
3	하루하루	빅뱅
4	천국	빅뱅
5	주문	동방신기
6	헤이 미스터 빅	이효리
7	미쳤어	손담비
8	이 노래	2AM
9	들리나요	소녀시대 태연
10	10점 만점에 10점	2PM

〈자료제공:멜론〉